



ETSI 38차 총회(GA)



박종봉

TTA 표준기획본부 전임연구원

1. 회의개요

금번 38차 ETSI 총회(2001. 11. 20~21, 프랑스 니스)는 2001년 2번째 가을회의로서 ICANN 워크숍과 병행하여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서 예상되었던 주요 이슈로는 첫째, ICANN 워크숍의 향후 ETSI 활동방향과 둘째, 개정된 예산 수립절차와 관련한 ETSI 회원국들의 반응, 셋째, EP SCP(Smart Card Platform)의 Partnership project로의 전환 등이었다.

금번 총회는 총 참석자 158명으로 예년의 3/4 수준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미국 테러와 IT분야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TSI의 사무총장인 Mr. Rosenbrock은 세계 IT 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많은 업체가 고전하듯 현재 ETSI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며, 위기 극복방안의 하나로서 보다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참여를 독려하기도 하였다.

양일간의 회의결과 ETSI 재무규정에 관한 회원사간의 의견차이 외에는 별다른 특별한 논의 사항이 없었던 회의였다. 각 주요 이슈별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주요 회의결과

○ ICANN workshop

ICANN workshop은 “Can I shape the future of the Internet?”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ETSI가 끊임없이 추진해오고 있는 인터넷과 관련한 표준개발분야 모색의 일환으로 준비된 것이다. 최근 기술적·경제적·사회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보통신 기술 중의 하나가 인터넷이라 할 수 있다. ETSI는 이러한 인터넷의 표준화가 IETF를 중심으로 한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ETSI는 인터넷 기술의 틈새표준화분야(nitch standardization area)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있다. EP TIPHON(Telecommunication and Internet Protocol Harmonization Over Networks)은 이러한 배경에서 ETSI가 추진한 표준화 분야이다.

34차 총회(1999. 11.)의 “EFR(ETSI Future Role) workshop” 이후 ETSI는 총회와 연계한 workshop 개최를 정례화하였고, 35차 총회(2000. 4.)에서는 “Mobile commerce workshop”을 통하여 EP M-COMM이라는 기술조직을 상설화하였다. 또한, 36차 총회(2000. 11.)에서는 “Strategic guideline workshop”을 통하여 ETSI의 표준화 추진전략을 해마다 점검토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처럼 기존에 개최된 workshop을 통하여 ETSI의 발전과 관련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여왔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도메인네임과 관련하여 ICANN이라는 조직(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http://www.icann.org/>)이 운영되고 있으며, ETSI가 ICANN의 PSO(protocol supporting organization)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ETSI가 어떠한 추가적인 표준화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ICANN workshop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발표되었으며, 이후 패널 토의가 진행되었다.

- ICANN : objectives and structure - role of ETSI(Azucena Hernández, Telefónica de España);
- ICANN hot issues and challenges for 2002

(Hans Kraaijenbrink, Royal KPN);

- A unique, authoritative root for the DNS (Tapio Kaijanen, FiCom);
- Domain names and telephone numbering (Tony Holmes, BT);
- Role of Public Policy in ICANN : GAC (Chris Wilkinson, European Commission)

그러나, 위와 같은 목표로 ETSI 사무국에서 준비한 ICANN workshop은 아무런 회원사의 호응과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결론지어졌으며, 다만 현재 ICANN의 PSO(protocol supporting organization)로 참여하고 있는 ETSI의 관련 활동을 보다 강화하자는 측면만 공조를 얻은 채 마감하게 되어 사무국을 당혹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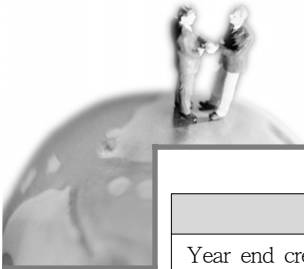
○ 재무위원회 보고

ETSI 재무위원회(Finance committee)는 6개의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고 이에 대한 승인요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였다. 각 안건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02 예산(안) 확정
2002 예산(안)은 2001년보다 약 11% 증가된 23,155kEUR로서 한화 약 260억 원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예산이 증액된 것은 회원사 감소에 따른 분담금 규모의 감소, 3GPP 활동예산의 증액, 그리고 ETSI 사무국 건물의 구입 등에 필요한 재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자세한 2002년 예산내역은 [표 1]과 같다.

[표 1] 2002년 ETSI예산

KEUR	2001FYE	Draft Y2002	Annual Δ	Annual% Δ
Total Expenditure (1)	20 868	23 155	2 287	11%
Funded by the following				
Members advance payments	12 403	(a) 13 220	817	6.6%



KEUR	2001FYE	Draft Y2002	Annual Δ	Annual% Δ
Year end credit	-1 306		1 306	
Observer fees	100	(a) 180	80	80%
Partners contributions	3 070	3 480	410	13.4%
3GPP surplus estimate	-150		150	
Members voluntary funding	294	280	-14	-4.8%
EC/EFTA funding infrastructure	2 670	2 000	-670	-25%
EC/EFTA funding eEurope	1 692	1 800	108	+6.4%
Sales	915	(a) 615	-300	-33%
Capital Income	450	300	-150	-33%
Plugtests Income	210	230	20	9.5%
Fora Hosting Income	120	120		
Other Income	50	50		
Provision for risks and charges written back	250		-250	-100%
Deferred income	(b) 100	880	780	780%
Total Income (2)	20 868	23 155	2 287	11%

자료 : "Draft Budget 2002", ETSI/GA38(01)10 - http://dobox.etsi.org/ga/ga38/perms/ga38_pd10.pdf

- 사무국 건물구입 승인

현재 Sophia antipolis에 있는 ETSI 사무국 건물은 France Telecom으로부터 장기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다. 금년 말로 임차시기가 종료됨으로써 ETSI는 (1) 기존 건물에 대한 회의설비(wireless LAN, audio system 등) 투자, (2) 매년 지불해야 하는 임대비용 과다(440kEUR) 등을 이유로 들어 건물 구입을 의결하였다.

- 2003년 이후 예산책정 원칙수정

현재까지의 ETSI 예산 책정원칙은 가을 총회에서 승인된 차기년도 예산에 대하여 차기년도 1/4분기에 회원사로부터 기술적·재정적 우선순위의 검토를 득해야 하나, 이와 관련한 적절한 회원사로부터의 comments를 받지 못하는 실정을 지적하며, 예산수립 이전에 ETSI 총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우선순위에 대한 input을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one single budgeting process'를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간에 많은 이견이 있어 장시간 동안 논의되었으나, 이사회와 재무위원회의 추가 작업을 통한 구체적인 가

이드라인을 추후 수립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아 제안된 원칙을 승인하였다.

- 기타 (3개 안건)

2001년 예산 예산잔액 1,306kEUR을 예년과 같이 차기 년도로 이월키로 결의하였으며, 작업절차(rules of procedure)규정 중 예산책정 관련 사항과 재무규정 (Financial Regulations) 중 일부사항 수정이 승인되었다.

○ Strategic Guideline 2002 승인

2001년 36차 총회에서는 자체 표준화 추진전략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 도입을 의결함으로써 매년마다 업그레이드된 strategic guideline을 가을 총회에 의제로 상정토록 하였으며, 이에 준하여 사무국의 사업계획을 작성토록 하였다.

금번 strategic guideline은 2001년과 동일하게 아래와 같은 4개의 전략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세부 가이드라인은 기존 16개에서 10개로 축소되었다. 각 전략군별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외부기관과의 협력전략(strategic guideline for external relationships):
 - Strategic Guideline 1: ETSI는 가능한 모든 분야에 외부기관과의 협력프로젝트(partnership projects) 증대를 모색한다. 개방성(openness), 합의(consensus), 투명성(transparency), 명확한 지적재산권 정책(IPRs policy), 그리고 재정적 공동책임(financial co-responsibility)이라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수립된 협력프로젝트의 확대는 ETSI의 세계적 명성을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유럽내 정보통신분야의 표준개발과 관련하여 기타 유럽 표준화기구(CENELEC, CEN)와 CEPT 및 EBU와 같은 기구와의 상호협력 및 작업방법 등에서 협력을 증대해야 한다.
 - Strategic Guideline 2: ETSI의 표준화 활동으로 도출된 결과물이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가지며, 보다 많은 대중에게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 표준개발전략 (strategic guideline for standards making):
 - Strategic Guideline 3 : ETSI는 회원사가 요구하는 고품질의 표준 및 기타 결과물을 개발하고 이를 유지한다는 것에 역량을 집중한다. ETSI는 고품질 표준개발자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원칙에 준해 운영되어야 한다.
 - 합의, 투명성, 개방성, 균형, 관리, 결과물의 접근용이(public access to deliverables), 지적재산권 관련 일관된 규칙, 효율성과 책임감, 일관성
 - Strategic Guideline 4 : 혁신적이며 새로운 작업영역으로의 ETSI의 지향은 보다 심도 있는 워크숍, eEurope 시책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 ICTSB에서의 보다 강화된 활동, 통신·인터넷·미디어(방송 및 contents)의 융합 관련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강화되어야 한다.
 - Strategic Guideline 5 : 보다 집중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략 토픽(strategic topics)” 리스트를 해년마다 도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 활동계획(business plan)은 해년마다 수립되어야 한다. 2002년 전략토픽은 아래와 같다.
 - 3GPP 및 ETSI 기타 TB의 이동(mobile) 및 무선(radio) 표준화 활동
 - IP Cable Communication
 - NGN 및 관련 고정망 표준화활동
 - 망 전반의 보안
 - Strategic Guideline 6 : ETSI는 EU 및 EFTA의 규제 목적과 eEurope과 같은 광범위한 EU/EFTA 시책의 framework 개발 등과 관련한 표준화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ETSI는 유럽 정보통신 정책과 관련하여 역할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 회원운영전략 (strategic guideline for membership base):
 - Strategic Guideline 7 : ETSI 재정관리는 아래의 원칙에 준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 ETSI는 비영리 조직임
 - ETSI 예산은 각 산하 기술조직의 철저한 비용분석을 통하여 책정되어야 하며, 예산책정절차(budgeting process)와 재정통제절차(finance control process)에 준하여 회원사가 요구하는 우선순위에 부합토록 하여야 함.
 - EU/EFTA 규제 및 시책에 부응하는 ETSI의 활동과 관련하여 EU/EFTA로부터 지속적인 재원을 조달하여야 함.
- 운용전략 (strategic guideline for operations)
 - Strategic Guideline 8 : 회원사 표준개발의 효율성 증대를 지원하는 세계적 수준의 전자표준화(e-Standardization)을 위한 도구 및 시책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 Strategic Guideline 9 : 도출된 전략토픽에 의거한 필요 결과물 개발과 회원사의 요구



에 부응하는 기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기술조직의 구조에 대한 면밀한 재고가 필요하다.

- Strategic Guideline 10 : ETSI 사무국은 질 높은 전문가로 구성하여 역동적인 수평적 조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사무국 직원의 수준, 기술, 급여 및 기타 고용조건은 회원사에 의해 정해진 우선순위에 준해야 하며,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Strategic Guideline 2002에서 주목할 사항은 첫째, ETSI는 guideline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자체 표준화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전략적 표준화 항목(strategic topics)을 도출하고 이에 많은 투자와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있

협력을 통한 3GPP, MESA와 같은 파트너십 프로젝트(Partnership projects)로 전환하기를 제안하였고, 회원사로부터 필요성을 인정받아 차기 총회(2002. 4.)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토록 하였다.

○ 기타 사항

금번 회의에서는 2000년 또는 2001년 분담금 미납회원의 회원자격 상실이 승인되었다(71개 회원). 따라서, 신규로 가입한 회원사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69개 회원) 총 ETSI의 회원사는 다소 감소하였다.

[표 2] ETSI 회원사 현황 (38차 총회기준)

구분	정회원	업저버	준회원	총계
37차 GA시 회원사 규모	660	55	174	889
증가(Increases)	+41	+5	+29	+75
- 신규 회원(new members)	38	5	29	
- 통합(reintegration)	2			
- 전환(transfer)	1			
감소(Decreases)	-47	-13	-30	-90
- 회원 자격 상실(expulsion)	24	6	19	
- 전환(transfer)		2	1	
- 자진 철회(withdrawal)	23	5	10	
총계	654	47	173	874

자료 : "Candidates for expulsion", ETSI/GA38(01)12rev3 - <http://dobox.etsi.org/ga/ga38/perms/ga38pd12r3.doc>

다는 것이며 둘째, 1996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ETSI는 외부 표준화 환경에 보다 민감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직구조를 모색하기 위한 이사회 산하 Ad hoc 그룹을 결성하였다는 것이다(guideline 9).

○ EP Smart Card Platform(SCP)

현재 프로젝트그룹(ETSI Project)으로 추진되고 있는 Smart Card Platform을 외부 기관과의

3. 참가 소감


금번 총회는 예년에 비해 큰 이슈가 없는 회의였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본다.

첫째, ETSI는 자체 조직의 방향설정을 위한 표준화전략을 Strategic guideline을 통하여 매년마다 점검하는 시스템을 정례화하고, 이에 준한 사무국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금년도에 처음 도입한 전략적 표준화항목

(strategic topics)은 ETSI가 가지고 있는 표준화 역량을 집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서, 국내 표준화 항목도출에 있어 염두해둘 사항으로 판단된다.

둘째, 현재 ETSI는 “ETSI의 미래는 외부기관과의 협력프로젝트(partnership project)의 증대에 달려있다”라고 단언할 정도로 협력프로젝트 증대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현시점에 국내 연구소 및 관련업체의 보다 적극적인 ETSI 참여가 요구된다. 특히, 재난구조와 관련한 Project MESA와 새로이 출범할 것으로 판단되는 SCP(Smart Card Platform)로의 참여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5차 ASTAP 포럼에서 개설된 Public Safety and Disaster Relief Communications EG(Expert Group)과 Project MESA와의 공조를 ASTAP과 ETSI에 공동으로 제안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식표준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환경과 가장 민첩하게 대응하는 기구인 ETSI가 1996년 조직을 개편한 이후 새로운 조직구조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ETSI의 조직 개편 과정과 결과는 국내표준화 추진방향에 많은 의미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이동통신 시장 GSM ‘대세’

미국 2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싱글러 와이어리스가 자사 전체 네트워크 표준으로 GSM을 선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이 10월 30일 보도했다.싱글러는 이날 자사의 전체 네트워크 표준을 GSM으로 결정하고, 향후 12-18개월에 걸쳐 현재 GSM과 CDMA가 혼재된 구식 네트워크를 현재보다 30-45배 빠르게 업그레이드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벨사우스(40%)와 SBC커뮤니케이션스(60%)의 조인트 벤처인 싱글러는 2100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데, 구식 아날로그 휴대전화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추진해 왔다. 싱글러는 10월 15일 또다른 이동사업자인 보이스트림과 동맹을 맺고, 보이스트림의 GSM 네트워크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싱글러가 보이스트림의 GSM 네트워크를 사용함으로써 CDMA 표준을 포기할 것이 유력하다고 전망했었다. 업계의 예상대로 싱글러가 GSM을 선택하면서 보이스트림-AT&T와이어리스-싱글러 등 3개 사업자가 GSM 네트워크를 선택한 반면, CDMA 진영은 버라이즌-스프린트PCS에 불과해 GSM이 미국 시장에서 대세를 차지하게 됐다. 싱글러의 GSM 표준 선택은 CDMA 표준을 사용하는 진영쪽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싱글러가 GSM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문제. 싱글러가 CDMA를 채택하면 자사 시장의 70%를 바꾸어야만 한다. 대량 장비 구매로 인한 비용 절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었다. 또 GSM 단말기가 CDMA 단말기보다 25-30달러 값싼 것도 고려됐다. 싱글러는 이날 자사의 전체 시스템을 GSM 표준으로 바꾸기로 결정하고 에릭슨 노키아 지멘스 등과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싱글러의 스테판 카터 CEO겸 사장은 “GSM은 세계가 선택한 무선 기술”이라면서 전세계 160개국에 이 GSM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CDMA는 미국과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유럽을 비롯한 기타 지역 사업자들은 대부분 GSM을 사용하고 있다. 싱글러는 캘리포니아, 워싱턴, 네바다, 테네시 동부 지역과 조지아 연안 등지에 이미 GSM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뉴욕지역 서비스는 지난 10월 15일의 계약에 따라 보이스트림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싱글러의 빌 클리프트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이번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작업을 오는 2003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싱글러의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작업은 ‘2.5세대(G)’ 기술로, 오는 2003년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3G 네트워크 전단계에 해당한다.